

본 연구는 돌봄 관련 변수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14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와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수, 위계적 중다회귀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신체 건강 만족도에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월 가계 총 소득, 돌보는 손자녀 수,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영향 변수였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성인 자녀와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포함되어,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돌봄 갈등이 없을 때,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논하였고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주제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신체 건강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

##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및 여가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of a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

조 윤 주<sup>1)</sup>

Yoon Joo Cho

## I. 서론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에서는 이미 고령화 현상에 관하여 다각도로 대비하여 왔다. 한 예로,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Baltes & Baltes, 1990),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 간 논쟁 이래 노인의 활동 참여와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활동 이론은 상실된 활동을 대체할 다른 활동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노년기 삶의 만족을 고양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Havighurst & Albrecht, 1953). 환언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이 많아, 개인이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때 관계망의 창출과 유지가 쉽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에 Herzog, Rodgers 그리고 Woodworth(1989)는 생산적 활동을 '유급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가사, 손자녀 돌봄, 자원봉사,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였다. Glass, Seeman, Herzog, Kahn 그리고 Beckerman(1995)도 이와 유사하게 가사, 정원 관리, 손자녀 돌봄, 유급 노동, 자원봉사를 노인의 생산적 활동으로 예시한 바 있다. Morris와 Caro(1995) 또한 틈새 시장 종사, 손자녀 돌봄, 가족 간병과 자원봉사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선행 학자들이 노년기 생산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유형에 손자녀 돌봄을 공통되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도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혈연에 관해 유대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기관 중심의 공적 돌봄이 일반화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 사적 돌봄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유희정, 이솔, 홍지수, 2015). 영아 대상의 보육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것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 등 이유는

\* 이 논문은 201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9).

1)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제 1저자, 교신저자 (bju0501@naver.com)

다양하며 이 때 돌봄 제공의 한 구심점으로 조부모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장시간 시장 노동으로 공보육의 접근성이 낮고, 강한 가족주의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돌봄 상품화의 선호가 낮아서라는 김양지영(2015)의 주장에서도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에서의 손자녀 양육 비중을 고려 시, 이들을 돌보는 노인 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활동 이론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나 결과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다. McIntosh와 Danigelis(1995)는 생산적 활동의 유형이 개인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들에게 기대되는 생산적 역할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합한 것이라면 그 활동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 동기에 따라서도 결과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손자녀 돌봄은 대개 성인 자녀의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형성된 조손가족과 동의어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대상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거의 유사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며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제시가 대부분이었다(김오남, 2007;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 2001).

이처럼 편협했던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 맞벌이 성인 자녀를 위해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예상보다 많아 일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자녀 돌봄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 제공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부족한 보육 기관의 보충과 신뢰할 만한 양육 담당자의 접근 용이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령 인구와 성인 자녀의 맞벌이 증가 추이를 볼 때, 조부모가 생산적 활동의 한 범주로서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순기능은 물론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손가족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육 상황으로 포괄하려 하며, 관련 연구들의 결과는 다양하다.

우선, 긍정의 측면이 우세한 연구로, 예를 들어, King과 Elder(1998)는 조모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손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손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조모의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동력이라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Dolbin-MacNab, 2006)에서도 이전의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손자녀 돌봄 시 보다 많은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조부모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녀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양가적인 결과도 있어 (Shlomo, Taubman-Ben-Ari, Findler, Sivan, & Dolizki, 2010), 자기 숙달감이 많을수록, 정신 건강이 양호하였지만, 자기 숙달감이 적을수록, 손자녀 돌봄에 많이 개입할수록, 비용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된 연구도 있다(Hayslip,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Minkler, Miller, & Driver, 2000). 즉, 손자녀 돌봄에 많이 관여할수록 자식과의 관계, 자신의 무능력 등으로 조모의 사기는 낮거나, 다수의 조모들은 양육 참여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친구들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 Baker와 Silverstein(2008)은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조부모나 장기간 돌본 조부모보다 돌봄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로는 돌봄 기간이 길수록 적응되었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손자녀 돌봄을 전담하는 55세 이상의 조모를 대상으로 한 Whitley, Kelley 그리고 Lamis(2016)의 연구에서 이들의 우울, 삶의 질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와 연령이 매개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일례로, 김오남(2007)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의 악화, 양육의 어려움, 심리적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을 조부모의 부담으로 언급하였다. 조모들의 경험을 질적 접근한 김은정과 정순돌(2011)은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떠맡음’, ‘돌봄 역할이 버거움’, ‘가족 안에서 내 처지가 억울하고 힘이 듦’, ‘힘들을 혼자서 삭임’, ‘손주 돌봄이 나와 가족에게 도움이 됨을 깨달음’, ‘점점 뿌듯함을 느낌’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전연우, 김윤숙 그리고 조희숙(2012)의 연구에서 물질적 보상보다 손자녀를 보는 재미만으로 만족하였지만,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조모는 양육에서 보람과 허탈감을, 딸과는 친밀감과 서운함을, 사위와는 당당함과 거리감을 느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종속 변수로서 대개 참여한 조부모의 양육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우울, 사기, 삶의 질 등 주로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정신 건강의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심신일원론의 주장과 같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생애 발달상 성장보다는 쇠퇴가 많은 노인에게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측면일 수 있다. 이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성공적이고 편안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이며 성공적인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Kelley, Whitley 그리고 Campos(2010)의 주장에서도 지지된다.

이에 신체적 건강 변수를 독립 변수로 접근한 연구도 보고되어(정우정, 이명선, 2014)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정서 상태보다 건강 상태 지각이 노년기에는 더욱 우선됨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요 변수로, 특히 종속 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손자녀 돌봄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우울, 삶의 질,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을 비교한 최혜정(2017)의 연구가 보고되는 정도이다. 이 외에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최경덕, 안태현, 2016)에서 살펴본 신체적 건강의 기준은 입원이나 외래 진료 횟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되게 지적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사교 활동의 제한과 같은 사회적 고립감이다.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객관적 차원으로 건강, 경제 수준, 직업, 교육, 문화, 안전 등 여러 영역들이 포함되는데(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과 수명, 문화 향유의 기회가 더욱 중시될 수 있다. 이는 여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 정경자와 김형수(2010)는 현재의 노인 세대는 경제 개발의 주역으로 여가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음을 언급하였다. 이 중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이 적은 이유에 대해 손자녀와 가사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손자녀 돌봄을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한 연구들은 상당수 축적되고 있으며,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실제 이를 중심 변수로 실시된 연구는 소수인 제한점을 반영하여 신체 건강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상정하고자 한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로 개인 시간이 부족하여 사회적 활동의 곤란 내지 고립감이 지적되므로 여가 활동 만족도도 종속 변수로 포함할 것이다. 한편 연구 대상 면에서 최근 보조적인 역할자로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조부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개 조부모 양육은 조모 양육으로 통용되므로(Kivett, 1985),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독립 변수로서 세대 간 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제공 등 심리사회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으로(김은정, 2015), 돌봄 상황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손자녀의 성이나 연령, 돌보는 인원, 돌봄의 기간이나 시간, 돌봄 대가, 돌봄 상황에서의 자녀와 갈등 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가령, Hayslip 외(1998)의 연구에서 손자 양육 시 손녀를 돌볼 때보다 역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주(2006)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주의나 관심의 정도가 달라 어릴수록 활동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 외에 돌봐야 하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컸으나(Taylor, Washington, Artinian, & Lichtenberg, 2007),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보고된다(정우정, 이명선, 2014).

돌봄 기간에 대해 Burton과 Devries(1992)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것에 부담감을 갖는다거나, 반대로 돌봄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더 오래 돌본 조부모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Baker & Silverstein, 2008)도 있다. 돌봄 시간은 시간이 길수록 양육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며(정미라, 최혜정, 강수경, 2015; Taylor et al., 2007), 돌봄의 대가 여부는 금전적 보상이 많을수록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조윤주, 2006). 돌봄 갈등 지각은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 자녀 간 발생하는 빈도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갈등이 있을 때 조부모의 삶의 질은 낮고 양육 부담이 높았다.

이처럼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를 주요 독립 변수로 살펴본 연구가 흔하지 않으며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종속 변수인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이 드문 시점에서 본 연구는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절차**

연구의 대상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 141명으로, 국민연금공단 주관 하에 실시된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해당 기관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원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돌보는 손자녀에 대한 정의는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손자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비동거 손자녀를 포함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친손자녀 또는 외손자녀”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62.3세로, 연령대 중 ‘60세 이상~64세 이하(28.3%)’가 가장 많았고 ‘55세 이상~59세 이하(24.9%)’는 그 다음이었다. 배우자 유무에 대해 ‘배우자 있음’이 67.4%, ‘배우자 없음’이 32.6%였는데 없을 경우, ‘사별’이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9.7%, ‘중학교 졸업’이 27.7%, ‘고등학교 졸업’이 22.7%를 차지하였다. 월 가계 총 소득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9.8%)’과 ‘200만원 미

만(29.1%)’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많았고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21.3%)’이 뒤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 = 141)

변 수	빈도(%)
<b>연령</b>	
50세 이상~54세 이하	16(11.3)
55세 이상~59세 이하	35(24.9)
60세 이상~64세 이하	40(28.3)
65세 이상~69세 이하	27(19.2)
70세 이상~74세 이하	16(11.3)
75세 이상~80세	7( 5.0)
<b>배우자 유무</b>	
있음	95(67.4)
없음	46(32.6)
(이혼)	3( 2.1)
(사별)	42(29.8)
(무응답)	1( .7)
<b>교육 수준</b>	
무학	9( 6.4)
초등학교 졸업	56(39.7)
중학교 졸업	39(27.7)
고등학교 졸업	32(22.7)
전문대학 졸업	1( .7)
대학교 졸업	4( 2.8)
<b>월 가계 총 소득</b>	
200만원 미만	41(29.1)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2(29.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0(21.3)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1( 7.8)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 3.5)
1000만원 이상	7( 5.0)
무응답	5( 3.5)

**2. 측정 내용**

1)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분석 시 통제 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조모의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월 가계 총 소득이 포함되었다. 연령은 ‘~세’로 측정된 것을 연속 변수화하여 이용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있는 경우를 기준 변수로 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조사되었는데 연속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월 가계 총 소득은 가구 전체의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였으며 ‘~천원’으로 조사된 것을 연속 변수로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 2)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로는 돌보는 손자녀의 성, 연령, 인원 수가 포함되었다. 손자녀의 성은 남녀로 구분된 성 변수 중 남아를 기준 집단으로 하였다. 손자녀 연령은 ‘~세’ 내지 ‘~개월’로 조사된 것을 모두 ‘~개월’로 변환하고 연속 변수로 분석하였다. 인원 수는 개방형 질문으로 ‘~명 수’를 기재하였다. 또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연관된 변수는 돌보기 시작한 기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대가로서 월 평균 금액,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이다. 돌봄 시작 시기는 손자녀의 연령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기재하였고, 손자녀 돌봄 시간은 일주일당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된 연속 변수이다. 그리고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가 있는가의 여부와 있을 경우 월 평균 금액을 조사하여 연속 범주로 취급하였다. 또한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성인 자녀와의 갈등 여부를 ‘있음’과 ‘없음’으로 파악하였으며 ‘있음’이 기준 변수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면 갈등 발생 빈도를 ‘일주일에 5~7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중 선택하게 하였다.

## 3) 신체 건강 만족도

신체 건강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 중 선택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 4) 여가 활동 만족도

여가 만족도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 중 선택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3. 분석 방법

이상과 같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윈도우용 프

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여가 활동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약술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이 돌보는 손자녀의 성별은 손자가 58.2%, 손녀가 41.8%로 남초 현상을 보였다. 이들의 연령은 ‘3세~5세(27.0%)’, ‘8세~10세(26.2%)’, ‘6세~7세(19.2%)’의 순으로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제일 많았다. 돌보는 손자녀 수는 ‘1명(71.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명(25.6%)’이었으며, 심지어 ‘3명’인 경우는 소수였지만 2.8%를 차지하였다. 손자녀를 돌본 기간은 ‘1년 이하’가 58.9%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3년’은 14.9%, ‘2년’은 11.4%였다.

조모가 주당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 37.6시간인데 ‘21시간 이상~30시간 이하(19.2%)’가 가장 많았고 ‘10시간 이하(18.4%)’, ‘11시간 이상~20시간 이하(14.9%)’, ‘31시간 이상~40시간 이하(12.8%)’, ‘41시간 이상~50시간 이하(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돌봄 시 성인 자녀로부터 금전적인 대가의 수령 여부는 ‘없음’이 44.0%, ‘있음’이 56.0%로 조사되었고, 대가가 있을 경우, 금액은 월 평균 약 45만 7천원이었다. 세부적으로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40.3%)’이 제일 많았으며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21.0%)’, ‘30만원 미만(17.7%)’은 그 다음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면서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없음(89.4%)’이 대다수였으며, 갈등이 있을 때 발생 빈도는 ‘한달에 1~2번(60.1%)’이 반수 이상으로 빈번하지는 않았다.

다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의

**표 2.** 손자녀 돌봄 변수와 신체 건강 만족도 및 여가 활동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

변 수	조모 연령	배우자 유무	조모 교육 수준	월 가계 총 소득	손자녀 성	손자녀 연령	돌봄 인원	돌봄시작 시기	주당 돌봄 시간	돌봄 대가 여부	자녀 돌봄갈등 여부
신체 건강 만족도	-.19*	-.11	.29***	.23**	.03	-.16*	.11 <sup>+</sup>	-.07	-.04	-.08	.26**
여가 활동 만족도	-.07	.03	.28***	.15*	.01	-.10	.03	-.05	-.06	-.07	.24**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의 경우, 조모 연령은  $r = -.19^*$ , 배우자 유무는  $r = -.11$ , 조모 교육 수준은  $r = .29^{***}$ , 월 가계 총 소득은  $r = .23^{**}$ , 손자녀의 성 과 연령은 각  $r = .03$ ,  $r = -.16^*$ , 돌봄 인원은  $r = .11^+$ , 돌봄 시작 시기는  $r = -.07$ , 주당 돌봄 시간은  $r = -.04$ , 돌봄 대가 여부는  $r = -.08$ ,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r = .26^{**}$ 이었다. 한편 조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서 조모의 연령은  $r = -.07$ , 배우자 유무는  $r = .03$ , 조모 교육 수준은  $r = .28^{***}$ , 월 가계 총 소득은  $r = .15^*$ , 손자녀 성은  $r = .01$ , 손자녀 연령은  $r = -.10$ , 돌봄 인원은  $r = .03$ , 돌봄 시작 시기는  $r = -.05$ , 주당 돌봄 시간은  $r = -.06$ , 돌봄 대가 여부는  $r = -.07$ ,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는  $r = .24^{**}$ 였다.

**2.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돌봄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산출한 상호 상관계수는 최저  $r = -.16^*$ 부터 최고  $r = .29^{***}$ 까지로 모두  $r = .60$  이하였다. Durbin-Watson 계수는 1.99로 2에 근접하였고  $VIF$ 는 전부 1점대로 10 미만이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통제 변수로 투입된 조모의 인구사 회학적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그리고

월 가계 총 소득이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손자녀의 인 구학적 변수로 손자녀의 성, 연령, 돌보는 손자녀의 총 인원 수를, 3단계에서는 돌봄 관련 변수로서 돌봄 시작 시기, 주당 돌봄 시간, 월 평균 돌봄 대가, 성인 자녀와 의 돌봄 갈등 여부가 투입되었다. 1단계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설명력은 13%였다( $F = 4.86^*$ ). 이 중에서 교육 수준( $\beta = .23$ ,  $p < .05$ )과 월 가계 총 소득( $\beta = .18$ ,  $p < .05$ )이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N = 138$ )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eta$	$\beta$	$\beta$
조모 연령	-.07	-.02	-.08
배우자 유무	-.06	-.08	-.08
조모 교육 수준	.23*	.21*	.22*
월 가계 총 소득	.18*	.18*	.15 <sup>+</sup>
손자녀 성		-.02	-.04
손자녀 연령		-.14	-.16
돌봄 총 인원		.18 <sup>+</sup>	.21*
돌봄 시작 시기			.05
주당 돌봄 시간			.02
월 평균 돌봄 대가			-.07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26***
$R^2$	.13	.16	.23
$R^2$ change		.03	.07
$F$	4.86*	3.43**	3.35***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2단계에서는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3%의 변량이 늘어나 16%를 설명하였는데( $F = 3.43^{**}$ ), 교육 수준( $\beta = .21, p < .05$ )과 월 가계 총 소득( $\beta = .18, p < .05$ )은 여전히 유의한 설명 변수였고 돌봄 총 인원( $\beta = .18, p < .10$ )도 영향을 끼쳤다. 즉,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끝으로 3단계에서 돌봄 관련 변수가 추가되어 7%의 설명력이 늘어났고 총 23%를 설명하였다( $F = 3.35^{***}$ ). 이 중 교육 수준( $\beta = .22, p < .05$ ), 월 가계 총 소득( $\beta = .15, p < .10$ ), 돌봄 총 인원( $\beta = .21, p < .05$ )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beta = .26, p < .001$ )가 설명 변수였다. 환언하면,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성인 자녀와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이들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 3.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문제로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돌봄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회귀 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산출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최저  $r = -.10^{***}$ 부터 최고  $r = .28^{***}$ 까지로 모두  $r = .60$  이하였다. Durbin-Watson 계수는 1.80으로 2에 근접하였으며 VIF는 전부 1점대여서 10 미만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투입 변수는 전술한 신체 건강 만족도의 분석 과정과 동일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9%였다( $F = 3.35$ ). 이 중 교육 수준( $\beta = .27, p < .01$ )이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1%의 변량이 늘어나 총 10%를 설명하였는데( $F = 1.97^*$ ), 교육 수준( $\beta = .27, p < .01$ )은 여전히 유의한 변수였으며 손자녀의

인구학적 변수 중 새롭게 추가된 설명 변수는 없었다. 즉,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 3단계에서 돌봄 관련 변수가 추가되어 6%의 설명력이 늘어났고 총 16%를 설명하였다( $F = 2.11^*$ ). 교육 수준( $\beta = .27, p < .01$ )은 최종적인 설명 변수였고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beta = .25, p < .01$ )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환언하면,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가 조모의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 = 138)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eta$	$\beta$	$\beta$
조모 연령	.03	.04	.05
배우자 유무	.05	.04	.05
조모 교육 수준	.27**	.27**	.27**
월 가계 총 소득	.11	.11	.08
손자녀 성		-.03	-.04
손자녀 연령		-.05	-.07
돌봄 총 인원		.06	-.09
돌봄 시작 시기			.02
주당 돌봄 시간			.00
월 평균 돌봄 대가			-.03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			.25**
$R^2$	.09	.10	.16
$R^2$ change		.01	.06
F	3.35*	1.97*	2.11*

\* $p < .10$ , \*\* $p < .05$ ,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상과 분석 변수 면에서 다소 편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극빈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돌봄 관련 변수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신체 건강

만족도에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월 가계 총 소득, 돌보는 손자녀 수,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영향 변수였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 가계 총 소득이 높을수록,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성인 자녀와 돌봄 갈등이 없는 경우,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포함되어, 조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와 돌봄 갈등이 없을 때, 이들의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조모의 신체 건강 및 여가 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였는데, 본 연구의 관심 변수를 주로 다룬 선행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적응이 원활하여 삶의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우정, 이명선, 2014). 이는 고학력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잘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인데(박기남, 2004), 대개 지적 수준이 높은 경우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병식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

돌봄 상황에서도 조모의 교육 수준은 손자녀 육아 방법에 대한 자신감 또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될 수 있다. 반면, 이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조모의 스트레스, 우울감에 부정적이라는 연구도 보고된다(최혜경, 2002; Baker & Silverstein, 2008). 이 외에 변수가 다소 다르긴 하나 조부모가 질병이 있을 경우, 양육 부담이 높으며, 조부모의 유희 역량과 재정 상태가 좋을수록, 양육 부담이 낮았다는 결과에서처럼(최혜지, 2009), 고학력의 조건이 신체 건강이나 여가 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손자녀 돌봄 시 성인 자녀와 갈등이 없을 때 신체 건강과 여가 활동 만족도가 높았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비양육 조모에 비해 자녀와 갈등 정도가 높았던 결과(최혜정, 2017), 그리고 양육 갈등이 있을 때 조모의 삶의 질은 낮고 양육 부담이 높았던 연구(이윤진 외, 2015; 정미라 외, 2015)와 같이 상호작용이 잦은 관계에서는 유쾌한 감정 외에 불쾌한 감정도 동반하여 경험하게 마련이다. 만약 극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신체 건강의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 이른바 정신신체장애(psychosomatic disorder)의 증상이 보고될 여지도 있으므로 성인 자녀와 갈등이 없을 시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설득력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 활동 만족도 역시 성인 자녀와 관계가 원만할 때 비례하여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외부에서 여가 활동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동기에서든 현재 손자녀 돌봄에 동참하고 있는 조모라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쉽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Carstensen, Fung, & Charles, 2003)의 설명과 같이 개인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 정서는 많이, 부정적 정서는 적게 느끼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에게 친밀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려 하며 불쾌한 모임은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자녀와 관계가 원만하므로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전이될 수도 있다. 마치 ‘가족-일 갈등’이 아닌 ‘가족-일 향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월 가계 총 소득과 돌보는 손자녀 수도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노년기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력 약화이다. 이에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이선미, 김경신, 2002), 월 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은 높고 우울은 낮다는 연구도 보고된다(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또한 조부모의 경제적 궁핍은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이들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있다(Solomon & Marx, 2000).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평생 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진료의 기회도 빈번하며 자녀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을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교육 수준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양상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돌보는 손자녀가 많을수록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도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Taylor et al., 2007)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 조모의 신체적 어려움이 예전보다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가 기본적으로 양호하여 돌봄 활동에 대해 신체적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손자녀를 돌보



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는 활동이므로 손자녀와 식사나 적절한 움직임 등을 공유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본인의 건강도 증진되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영아기의 손자녀를 돌볼 때에는 노동량이 많아 신체적 질환도 많았으나 성장한 후 요구량이 경감된 것으로 지각하였다는 조운주(2016)의 연구에서처럼 연령대에 따른 돌봄 양의 변화나, 돌봄 경험이 축적, 숙달되어 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을 주로 살펴본 것이기는 하나 장기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보다 돌봄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우울을 더 많이 느꼈다는 연구 결과(Baker & Silverstein, 2008)에서, 돌봄 기간이 길수록 적응되었을 가능성으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이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으로 '3세~5세(27.0%)'와 '8세~10세(26.2%)'가 반수 이상이었는데 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이므로 돌보는 인원과 이들이 투입하는 신체적 에너지의 양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정우정과 이명선(2014)은 조부모가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돌봄 활동을 중단하여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가 각 3.08( $SD = .82$ ), 3.08( $SD = .71$ )로 중간 점수가 3점인 것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이었다. 관련된 만족도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적인 영향 변수였던 조모의 교육 수준과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의 연령상 제도적인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손자녀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수강 기회의 부여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Dolbin-MacNab(2006)의 연구에서도 이전의 자녀 양육 경험이 손자녀 돌봄에도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활용되어 조모의 자신감과 즐거움을 배가시킨다고 언급되었다. 서울시 일부 자치 구나 지역 내 유관 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신의 육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부모 학교 등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손자녀 돌봄을 시작하기 전

에 수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양육 중간에 조부모들이 별도의 학습 시간을 할애하기는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교육 정보는 손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IT 분야의 장점을 활용하여 온라인 기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자조 집단을 조직화하여 찾아가는 교육 형식도 고안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자녀와의 돌봄 갈등 여부가 중요하며, 이전 연구에서도 자녀와의 유대 관계 부족, 가치관의 갈등, 다른 가족과의 갈등을 언급한 결과가 보고되었다(최혜정, 2017). 이에 이들과 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여가 증진 프로그램 등을 조부모 뿐 아니라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경자와 김형수(2010)는 홀로 사는 노인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여가 스포츠 활동을 적게 하는 이유가 손자녀와 가사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카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조부모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의 활용을 생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든지, 일부 양육 보조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돌봄 활동을 분담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아버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부 대상의 교육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 외에 월 가계 총 소득과 돌보는 손자녀 수도 신체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신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제공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즉, 아웃리치 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 시 경험하는 신체적 어려움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체 건강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는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노년기 연령의 특성상 이러한 상태가 무한하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적인 건강 검진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조부모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표집되었으며 공신력있는 자료

인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차 자료로서 변수의 활용에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 만족도와 여가 활동 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를 좀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조손가족 대상의 심리사회적 변수 위주로 접근하여 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 관련 변수들이 주요 변수이며 종속 변수로서 조모의 신체 건강 만족도 뿐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가 활동 만족도를 살펴본 점은 신선한 시도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친족 지킴이로서 가족 돌봄의 주축이었던 조모가 생산적 노화의 주체일 뿐 아니라 이들이 활동 참여 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양지영(2015). 돌봄의 세대 전가: 전일제 취업 부부의 조(부)모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87-145.
- 김오남(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김은정(2015). 손자녀 돌봄 지원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0, 69-96.
- 김은정, 정순돌(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0.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2009).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강 증진 행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유희정, 이슬, 홍지수(2015). **맞벌이 가구의 영아 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선미, 김정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윤진, 권미경, 김승진(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연우, 김운숙, 조희숙(2012). 손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 정경자, 김형수(2010). 외국의 노인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한국 사회로의 시사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 719-731.
- 정미라, 최혜정, 강수경(2015).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3), 119-141.
- 정우정, 이명선(2014).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지각된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3), 310-319. doi:10.7475/kjan.2014.26.3.310
- 조운주(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21.
- 조운주(2016). 손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5(4), 409-421. doi:10.5934/kjhe.2016.25.4.409
- 최경덕, 안태현(2016).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 분석법을 활용하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3), 99-128.
- 최혜정(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 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혜정(2017).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삶의 질 및 자녀와의 갈등 비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2), 80-87.
- 최혜지(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 Sen의 인간 존재 실현력 패러다임을 통한 접근. **한국인구학**, 32(3), 103-126.
- 한혜자, 류창희, 이영세(2001).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과 이에 따른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11, 195-211.
- Baker, L. A., & Silverstein, M. (2008). Depressive symptoms amo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multiple rol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6(3), 285-304. doi:10.1080/

15350770802157802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pp. 1-30). Cambridge U. K.: Cambridge Press.
- Burton, L. M., & Devries, C. (1992). Challenges and rewards: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as surrogate parents. *Generations, 16*(3), 51-55.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stensen, L. L., Fung, H. H., & Charles, S. T. (2003).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cond half of life. *Motivation and Emotion, 27*(2), 103-123. doi:10.1023/A:1024569803230
- Dolbin-MacNab, M. 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5), 564-575. doi:10.1111/j.1741-3729.2006.00426.x
- Glass, T. A., Seeman, T. E., Herzog, A. R., Kahn, R., & Beckerman, L. F. (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0*(2), 65-76. doi:10.1093/geronb/50B.2.S65
- Havighurst, R., & Albrecht, R. (1953).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 Hayslip, B., Shore, J., Henderson, C. E., & Lambert, P. L.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3*(3), 164-173. doi:10.1093/geronb/53B.3.S164
- Herzog, A. R., Rodgers, W. L., & Woodworth, J. (1989). *Subjective well-being among different age group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Kelley, S. J., Whitley, D. M., & Campos, P. E. (2010).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health outcom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2*(4), 379-386. doi:10.1111/j.1547-5069.2010.01371.x
- King, V., & Elder, G. H. (1998). Perceived self-efficacy and grandparent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3*(5), 249-257. doi:10.1093/geronb/53B.5.S249
- Kivett, V. R. (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4), 565-571. doi:10.2307/584020
- McIntosh, B. R., & Danigelis, N. L. (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affec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0*(4), 229-239. doi:10.1093/geronb/50B.4.S229
- Minkler, M., Miller, D., & Driver, D. (2000). Grandparent caregiving and depression. In B. Hayslip & R. Goldberg-Glen (E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07-219). New York: Springer.
- Morris, R., & Caro, F. G. (1995). The young-old, productive aging, and public policy. *Generations, 19*(3), 32-38.
- Shlomo, S. B., Taubman-Ben-Ari, O., Findler, L., Sivan, E., & Dolizki, M. (2010). Becoming a grandmother: Maternal grandmothers' mental health, perceived costs, and personal growth. *Social Work Research, 34*(1), 45-57. doi:10.1093/swr/34.1.45

- Solomon, J., & Marx, J. (2000).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B. Hayslip & R. Goldberg-Glen (E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183-205). New York: Springer.
- Taylor, J. Y., Washington, O. G., Artinian, N. T., & Lichtenberg, P. (2007). Urban hypertensive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Stress, health, and implication of child care. *Clinical Gerontologist, 30*(4), 39-54. doi:10.1300/J018v30n04\_03
- Whitley, D. M., Kelley, S. J., & Lamis, D. A. (2016).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in African American custodial grand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2*(2-3), 166-187. doi:10.1177/0091415015626550

## A Study on the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of a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

Yoon Joo Ch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which account for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and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Methods:** The sample included 141 grand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rstly, the variables that explained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of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were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the number of grandchild, and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When their educational level were higher, had more money, cared for grandchild more, and did not experience conflict with adult child, they showed the higher scores of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Secondly, as to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of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were included. That is, they had higher educational level, and without caregiving conflict with adult child,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s reported higher levels of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Keywords:** grandchild caregiving grandmother, physical health satisfaction,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Received July 29, 2019

Accepted September 14, 2019